

2008년 東崇學術財團이 선정한 언어학자
梁柱東(1903-1977)

无涯 梁柱東의 삶과 학문에 대해서는 그가 남긴 많은 글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그에 대한 평가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의 새로운 면을 밝힌다기보다는 그간 이루어진 평가를 정리하면서 그의 업적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학문을 분류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의 연구는 국문학과 국어학 연구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구가 어느 특정 분야를 지향하며 단절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대표적 업적인 향가 연구는 국문학과 국어학적 연구 방법론이 동시에 적용되는 분야였기 때문이다. 단 이 글이 국어학자로서 양주동을 소개하는 글이라는 점에서 그의 활동을 ‘국어학 연구를 시작하기 전의 활동’과 ‘국어학자로서의 활동’으로 나누어 기술할 것이다.

(국어학 연구를 시작하기 전의 활동) 양주동은 1903년 경기도 개성에서 남원 양씨 원장(元章)과 강릉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개화한 소지주의 가정에서 자라난 그는 열두 살 때 평양 고보에 입학하여 신식 학문을 접하게 되지만, 곧 학교를 그만두고 5년여를 한문학에 몰두한 후²⁾, 중등학교 속성과에 입학하여 중학 전 과정을 일 년에 마쳤다. 1921년 奉天大學 예과 불문과에 입학하였고, 학부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하여 1928년 졸업하였다. 졸업하던 해 평양 송실전문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1938년 신사참배문제로 송실전문학교가 폐교되자, 1940년 서울 경신학교로 자리를 옮겨 교직원생활을 계속했다. 1947년 동국대학교 교수로 부임해 1974년 퇴임하였고 1977년 향년 75세로 별세했다.

그는 대학 재학 시절에 시인이자 번역가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불문학을 통해 낭만주의 및 상징주의 문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경향성을 1923년 그가 주도하여 발간한 「金星」³⁾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탈현실의 예술지상주의적 문학을 추구한 인물로 거론되지만, 식민지하의 정신적 억압 상황에서 탈현실의 예술지상주의적 문학을 결국 민족주의적이며 반제국주의적인 저항성을 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의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⁴⁾

양주동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학은 시대정신보다 영구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이광수의 주장⁵⁾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문학은 시대의 산물이며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에 따라 문학적 방향도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 양주동이 민족협동전

1) 양주동은 많은 학술논저뿐만 아니라, 「文酒半生記」(1959, 新太陽社)와 「人生雜記」(1981, 探求堂)라는 수필집을 남겼다. 또한 방송에 출연하여 대중적 인지도도 높았다. 한 예로 그는 한국 토크쇼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유쾌한 응접실’(동아방송, 전영우/김동건 아나운서 진행)에 패널로 출연해 재담으로 인기를 끌었다.

2) 「斗溪雜筆」에는 이병도가 향가에 대해 자문하러 온 양주동의 한학 실력에 놀랐다는 일화가 있다.

3) 「金星」은 1923년 11월 20일에 창간되어 1924년 봄 3호까지 발행된 최초의 본격적인 시전문지이다.

4) 1932년에 나온 그의 시집 「조선의 맥박」은 민족을 향한 그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5) 이광수는 1926년 1월 「조선일보」 지상에 “中庸과 徹底 -朝鮮이 가지고 싶은 文學”을 발표했다. 이는 20년대 전반기에 대두한 퇴폐주의 문학운동과 사회주의 문학운동이었다. 이광수는 이러한 경향들이 “그 시대의 일시적인 특색은 필연적 영구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문학은 “시대정신”보다 “영구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6) 양주동은 이광수의 논리에 반박하는 글을 “徹底와 中庸 -朝鮮이 가지고 싶은 文學”(「조선일보」 1926.1.10-12)을 발표했다. 이광수가 처음 썼던 제목의 앞뒤를 바꿔 반박의 글을 쓴 데에서 論客으로서의 才氣를 느낄 수 있다.

선론을 내건 신간회의 창립 이후인 1929년 「文藝公論」을 창간하면서 민족주의와 계급주의 경향을 절충한 이른바 ‘折衷主義文學’을 제창한 것은 이러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민족주의 문학이나 사회주의 문학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는 ‘민족’과 ‘계급’을 앞세우는 문학관을 비판하며, ‘말과 운율을 떠나서 사상이나 정서를 이야기함은 시의 본질을 이해치 못한 것’이라는 말로 그의 문학관을 드러냈다. 이는 그가 텍스트의 형식과 그 형식에서 나오는 미적 효과를 중시함을 보여준다.

텍스트 중심의 비평관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이 그의 번역관이다. 그는 시의 번역 태도를 논하며 ‘直譯論’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당시 외국시 번역을 주도하던 金億의 ‘意譯論’과 충돌하게 된다.⁷⁾ 양주동의 직역론은 ‘텍스트를 무시했던 종래의 번역 활동에 대한 비판’으로, 이후 異河潤, 金晋燮 등 해외문학과 문인들을 상대로 논쟁을 계속하면서 그의 ‘직역론’은 번역 이론의 하나로 구체화된다. 이런 점에서 양주동과 김억의 논쟁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번역 태도 논쟁은 문학뿐만 아니라 번역학에서도 史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지속적인 번역 작업을 통해 번역의 태도를 직접 보여주었는데, 1939년에 「文章」에 연재한 “近古文選-東西奇文譯鈔”는 동서양의 주옥같은 작품들을 번역한 것으로, 현재까지 좋은 번역의 실례로 거론되고 있다.

그가 향가와 고려가요 분석을 통해 국어학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데에는 형식과 내용의 습-을 중시했던 비평관과 텍스트에 충실한 번역을 중시했던 번역관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⁸⁾

(국어학자로서의 활동) 1934년 우연히 도서관에서 小倉進平의 “郷歌及吏讀의 研究”를 통독한 후 충격을 받아 향가연구에 골몰하게 되었다는 그의 회고에 근거한다면, 그가 본격적으로 국어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때는 193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그의 절충주의 문학론이 신간회의 해체 등 외적 상황의 영향을 받아 빛을 잃어가던 때여서, 그러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었을 것이다. 그는 그 돌파구를 역사에서 찾았고, ‘향가’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에게 향가는 민족과 예술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구원의 텍스트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향가 연구의 첫 결과물인 “郷歌의 解讀-특히 願往生歌에 就하여”는 1935년 2월 「靑丘學叢」에 발표되었다. 그가 연구를 시작한 시점을 생각하면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첫 연구 성과를 낸 것이다. 이 논문은 1936년 1월에 조선어로 번역되어 「朝鮮日報」에 13회 연재되었다. 이 연구는 저명한 일본인 학자(小倉進平)의 학설을 뒤집은 연구라 하여 주목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 하나로 조선인들의 민족주의를 고양시켰다. 그는 이후 「正音」, 「震壇學報」 등과 같은 전문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으며, 「文章」, 「朝光」 등과 같은 문예지와 교양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과 같은 일간지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물을 발표하는 한편, 향가에 대한 주석 작업을 지속하였다. 1939년 전반기에 향가 연구의 의미나 앞으로의 연구 계획 등을 담은 글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1939년에 향가 연구가 일단락되었으며, 1942년에 발행한 「朝鮮古歌研究」의 내용도 이 때 거의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가 해독이 일단락되자 1939년 중반부터 고려가요의 주석을 시작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는 “麗謠, 郷歌의 註釋其他-나의 연구테마”(1939. 3. 7)에서 향가를 정확하게

7) 1924.05. “開關 4月號의 ‘金星’ 評을 보고-金岸曙君에게.” 「金星」 3.

8) 고영근(2003)에서는 양주동의 이러한 업적이 텍스트언어학에서 이야기하는 텍스트의 응집성(coherence)과 응결성(cohesion) 개념을 비교적 충실하게 활용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독하려면 우선 麗謠를 완전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고려가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 계획을 밝혔는데, 향가와 여요에 대한 주석을 마친 후에는 이를 종적으로 정리.체계화하여 古語學, 주로 上代 語彙의 構成, 變遷, 語法發達史를 논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계획 하에 “古歌謠의 語學的 研究”, “古歌釋注”, “麗謠釋注” 등을 발표하면서 ‘井邑詞, 動動, 鄭瓜亭, 翰林別曲, 處容歌, 西京別曲’ 등 6편의 고려가요에 대한 주석을 「동아일보」에 발표하였다. 그는 이들 연구와 미발표된 원고 10편을 모아 1947년 「麗謠箋注」를 발행하였다.

그는 古歌謠를 감상할 수 있는 문학적 감상력과 이를 해독할 수 있는 국어학적 치밀함을 두루 갖추었으므로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이에 대한 해독과 해석에 성공했다. 그가 고가요 연구에 손을 댄 것이 1934년경이라 할 때, 「古歌研究」와 「麗謠箋注」라는 방대한 내용의 저서가 실질적으로 해방 이전에 완성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麗謠, 鄉歌의 註釋其他-나의 연구테마”(1939. 3. 7)에서 계획했던 연구 중 “향가와 고려가요를 종적으로 정리.체계화하여 古語學, 주로 上代 語彙의 構成, 變遷, 語法發達史를 논술하겠다.”고 한 것 즉 ‘國語史’를 저술하겠다는 계획은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50년대 중반 이후 그의 연구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單行本

1942.11. 「朝鮮古歌研究」서울: 博文書館.⁹⁾

1947.04. 「麗謠箋注」서울: 乙酉文化社.

1954.06. 「古歌研究」(訂補版) 서울: 博文書館.

1962.06. 「國學研究論攷」 서울: 乙酉文化社.

論文(음운.문법 및 어원 관련 논문은 해당 부분에 기술)

1935.02. “鄉歌의 解讀 特히 願往生歌 就いて.” 「靑丘學叢」19.

1936.01. “上代語 研究의 路에서.” 「朝光」2-1.

1936.01. “鄉歌의 解讀에 就하여-特히 願往生歌를 中心으로.” 「조선일보」1.1-1.23(13회 연재)

1939.01. “鄉歌와 國風 古詩-그 時代와 文學的 價値에 대하여.” 「조선일보」1.1, 1.8.

1939.03. “麗謠, 鄉歌의 註釋其他-나의 연구테마.” 「조선일보」3.7.

1939.04. “鄉歌註釋散考.-上代語法에 關한 若干의 基本的 見解” 「震檀學報」10.

1939.06. “古歌謠의 語學的 研究(1)-井邑詞 釋注-.” 「동아일보」6.21-7.12(19회 연재).

1939.07. “‘全-’字 小辨-井邑詞 後腔의 一問題.” 「조선일보」7.3-7.8(6회 연재).

1939.09. “解疑數語-田蒙秀氏의 疑問에 答함.” 「동아일보」9.27-10.4(4회 연재).

1939.10. “處容歌 釋注-古歌謠의 語學的 研究.” 「동아일보」10.7-11.16(20회 연재).

1940.02. “古歌謠의 語學的 研究(2)-鄭瓜亭篇-.” 「동아일보」2.8-2.20(9회 연재).

1940.02. “古歌釋注-翰林別曲-.” 「동아일보」2.21-2.25(4회 연재).

9) 박문서관은 해방 이전에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을 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사전」을 주관한 출판사이다. 난해한 고어 활자를 따로 만들어 가며 「조선고가연구」를 출판한 데에서 민족 문화운동에 대한 출판사의 신념을 알 수 있다. 김민수 선생님의 회고에 따르면, 박문서관에서는 해방 이후 국어사전편찬실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국어사전(이희승 편) 편찬을 위해 힘썼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나 편찬원(김윤수: 김민수 선생님의 친형)이 사망하고 출판사도 운영난에 빠지며 이 사전은 출판되지 않았다.

- 1940.06. “麗謠 釋注(1)-雙花店篇-.” 「동아일보」6.21-7.7(7회 연재).
 1940.07. “麗謠 釋注(2)-西京別曲-.” 「동아일보」7.9-7.26(10회 연재).
 1940.12. “詞腦歌 釋注 序說-향가의 原稱과 그 原義-.” 「文章」2-10.
 1949.03. “古歌箋筭疑(上).”, 「學風」2-2.
 1949.04. “古歌箋筭疑(下).”, 「學風」2-3.
 1949.06. “續古歌今釋-時調와 麗謠-.” 「白民」6.

국어학 연구에의 기여

양주동은 향가와 여요에 대한 주석 작업을 진행하면서 국어학 연구와 관련한 많은 제안을 했고, 이는 오늘날까지 국어학 연구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배(1995), 최세화(1988), 고영근(2003)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 이 글에서 ‘借字法’, ‘音韻’, ‘文法’, ‘語源’으로 나누어 양주동의 연구가 국어학 연구에 기여한 바를 간략하게 기술해 보았다.¹⁰⁾

借字法

차자법의 원리를 체계화하여 향가 해독의 기반을 닦은 인물이 양주동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에 앞서 小倉進平의 연구가 있었지만, 양주동의 향가 해석이 小倉進平의 해석을 뛰어넘는 것이었듯이, 차자의 해독에 있어서도 양주동은 小倉進平의 해독 방식을 뛰어넘었다. 「古歌研究」에서 양주동은 “詞腦歌에 가장 慣用된 記寫法은 體.用言의 一單語를 먼저 義字로 表示하고 다음 그 말의 末音 또는 末音節을 주로 音借字로 添記함이니 이를 義字末音添記法이라한다.”고 했는데, 차자 원리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향가를 단순히 훈독과 음독으로 나누어 해독했던 小倉進平의 방식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현재의 차자 표기 해독은 바로 이 義字末音添記法의 바탕 위에 이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양주동의 「古歌研究」를 통해 차자법 연구의 체계를 수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완진(1980)에서는 “이 末音添記는 鄉歌의 해독에 공헌하는 바 클 뿐만 아니라, 고대국어의 음운론과 형태론 및 통사론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막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音韻

양주동은 언어학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받지는 않았지만, 향가를 해독하고 고려가요를 주석하는 일의 특성상 언어학적 분석 방법을 치밀하게 적용해야만 했다. 그가 활용한 언어학적 지식은 영문법의 학습 과정에서 익혔거나,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문이었는지 그는 단독 논문으로 특정 언어학적 주제를 천착하지는 않았다. 음운론에 대한 사항도 「古歌研究」와 「麗謠箋注」에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주석의 일반적 원칙을 밝힌 논문에서 음운론적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정도였다. 이런 점 때문에 그의 선구적인 착상이 연구사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가 음운론적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 중 연구사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거론되어 왔던 것은 ‘母音調和’, ‘複母音’, ‘複子音’ 등에 대한 것이다.

모음조화에 대해서는 「古歌研究」와 「麗謠箋注」에서 그 인식의 일단을 보이고 있다. 그는

10) 이 글에서의 내용은 위의 세 편 글을 참조한 것임을 밝힌다.

‘諧音法’이라는 술어를 사용하면서 ‘隱’과 ‘焉’이 각각 ‘은’과 ‘은’에 대응된다고 봄으로써 고대 국어에 모음조화 현상이 있었음을 거론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모음 ‘이’가 중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麗謠箋注」에서도 매개모음 ‘으’와 ‘오’가 모음조화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된다고 보았고, 모음 ‘이’는 중성모음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중성모음으로 ‘ㅣ, ㅡ’를 설정한 小倉進平의 논의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으로, 이송녕의 “모음조화 수정론”에 앞선 것이란 점이 그간 몇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양주동은 현재의 음을 기준으로 ‘ㄱ, ㅋ, ㆁ’ 등을 單母音으로 본 견해의 문제점을 ‘以今推古’라 비판하면서 이를 ‘ㅏㅣ, ㅑㅣ, ㅓㅣ’의 複母音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ㅐ’, ‘ㅓ’ 등과 같이 합용병서로 기록된 것도 複子音으로 보았다. 이는 곧 글자의 구조대로 그 음가 또한 복합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최근의 연구들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라어에 ‘빙, ㅏ’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자신의 학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는데, 그는 고대국어에도 ‘빙, ㅏ’ 등의 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학자였다. 이는 고대어의 모음 간 [*s], [*b]가 두 갈래의 발달을 했다는 가설¹¹⁾과 대립되는 것으로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였다. 그러나 당시 논란 이후 고대국어에 ‘빙’, ‘ㅏ’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¹²⁾

이런 점을 볼 때 양주동의 연구에서 제기된 견해들을 치밀하게 검토하고 그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는 작업은 앞으로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1939.05. “語學的 若干의 通俗問題.” 「朝光」5-5.

1939.12. “古語法數則.” 「正音」32.

1940.01. “東方文化의 樞軸, 음운 어법의 법칙성.” 「동아일보」1.9~1.13.

文法

문법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견해로는 원시추상명사 즉 의존명사 ‘드, 스’를 거론함으로써 의존명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분포나 기능상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이 형태가 같다는 것에 기대어 의존명사 체계를 설정한 데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분포 환경을 고려해 이러한 분석을 이끌어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양주동은 현대국어에서는 관형사형어미로만 기능하는 ‘ㄴ, ㄹ’에 대하여 명사적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앞에서 언급한 보조사 ‘는’과 목적격조사 ‘를’에 확대 적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는 람스테드와 같은 알타이학자들의 견해와 일치되는 점이 있어서, 한국어가 다른 알타이제어와 같이 기원적으로 명사문이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는 형태상 유사성이 보이면 같은 기능을 부여하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조사의 분석이다. 그는 「古歌研究」에서 모음이나 자음의 특성에서 조사의 근본 개념을 구한 바가

11) 이 가설은 고대어의 ‘*ㅁ술(村)’, ‘*사비(蝦)’는 ‘ㅁ술’, ‘사비’로 변화했음에 대하여, ‘*가슴(胸)’, ‘*고빅(曲)’은 이러한 변화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12) 이기문(1972)에서는 두 갈래의 상이한 변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 변화의 상이한 조건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빙, ㅏ’은 고대에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있는데, 이 또한 형태상 유사한 면이 있으면 같은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견해에 바탕을 둔 것이다.¹³⁾ 이러한 견해가 언어학적 타당성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 이들이 향가와 고려가요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현대적 관점에서 새롭게 취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語源¹⁴⁾

그는 어원론과 관련하여서도 몇 편의 글을 남겼다. 이는 借字表記된 국명, 지명, 인명, 관명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관심의 결과물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다룬 어휘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을 볼 때, 그가 중세어나 고대어의 어휘체계를 밝힌다든지 어휘사를 엮을 목적으로 어원 연구를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는 그때그때의 관심사에 따라 해당 어휘의 뿌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목적으로 어휘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그는 ‘얼’에 대한 어원을 설명하면서, 오늘날 ‘魂’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얼’이, 알고 보면 ‘迷陷’ 곧 ‘정신 못 차리다’의 뜻을 밝히고, 이를 혼의 의미로 사용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1938.11. “語義攷 數則.” 「正音」27.

1936.09. “語源 考證 數題-古語에 남은 現代的 意味-.” 「조선일보」9.11-9.15.

1940.03. “朝鮮古語集錄略攷.” 「조광」6-3.

1940.07. “「하늘」의 原義.” 「조선일보」7.28~7.30.

1958.10~12. “古語研究抄.” 「思潮」1-5~1-7.

1959.02. “도령과 아리랑.” 「民族文化」4-2.

1959.03. “님, 년, 놈 考.” 「民族文化」4-3.

1959.03. “續古語研究抄, 「얼」이란 말에 대하여.” 「동아일보」3.27.

<參考文獻>

고영근(2003). “양주동의 국어학 연구.” 「국어국문학」133.

金敏洙(1992). 「新國語學史」(全訂重版) 서울: 一潮閣.

金時泰(1978). “无涯 梁柱東 研究 -民族主義 文學論을 中心으로-.” 「東岳語文論集」11.

金英培(1995). “梁柱東論.” 「東岳語文論集」30.

金完鎭(1980). 「鄉歌解讀法 研究」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_____ (1985). “梁柱東.” 「국어 연구의 발자취 (I)」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无涯先生古稀紀念論叢刊行會(1973). 「梁柱東博士 프로필」서울: 探求堂.

无涯先生古稀紀念論叢刊行會(1973). 「梁柱東博士古稀紀念論文集」서울: 探求堂.

无涯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1963). 「无涯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서울: 探求堂.

崔世和(1988). “无涯 梁柱東 先生の 國語學 研究.” 「韓國文學研究」(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11.

黃涓江(1991). “无涯 梁柱東과 朝鮮古歌研究.” 「양주동연구」서울: 민음사.

13) 고영근(2003)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처소론자들의 견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14) 그의 어원론에 대한 평가는 고영근(2003)을 참조하였다.

<2008년 11월 20일 최경봉>

조선의 맥박(脈搏)

한밤에 불꺼진 재와 같이
나의 정열(情熱)이 두 눈을 감고 잠잠할 때에,
나는 조선의 힘없는 맥박(脈搏)을 짚어보노라,
나는 님의 모세관(毛細管), 그의 맥박(脈搏)이로다.

이윽고 새벽이 되어, 흰한 동(東)녘 하늘 밑에서
나의 희망(希望)과 용기(勇氣)가 두 팔을 뻗내일 때면,
나는 조선의 갱생(更生)된 긴 한숨을 듣노라,
나는 님의 기관(氣管)이요, 그의 숨결이로다.

그러나 보라, 이른 아침 길가에 오가는
튼튼한 젊은이들, 어린 학생(學生)들, 그들의
공 던지는 날래인 손발, 책보 낀 여생도(女生徒)의 힘있는 두 팔,
그들의 빛나는 얼굴, 활기(活氣) 있는 걸음걸이—
아아 이야말로 참으로 조선의 산 맥박(脈搏)이 아닌가.

무력무력 자라나는 갓난 아이의 귀여운 두 볼,
젖달라 외오치는 그들의 우렁찬 울음,
적으나마 힘찬, 무엇을 잡으려는 그들의 손아귀,
해죽해죽 웃는 입술, 기쁨에 넘치는 또렷한 눈동자—
아아 조선의 대동맥(大動脈), 조선의 폐(肺)는, 아기야, 너에게만 있도다.